

No. 2013-26

일본 경제 동향

(Japan Weekly Economic Digest)

2013. 06. 24

- ① 일본경제지표
- ② 주간경제이슈
: 2013년도 일본경제전망
- ③ 경제정책동향
- ④ 일본기업동향
- ⑤ 한국관련워치

1 일본경제지표

□ 주간 시황지표

- 엔화환율 : 미 버냉키 FRB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발언에 따른 엔매도 증가로 엔화약세
- 장기금리 : 미국의 장기금리상승 영향으로 주중 이후 상승세

구 분	6.17(월)	6.18(화)	6.19(수)	6.20(목)	6.21(금)
엔화의 대미달러화 환율(달러당)	94.65	94.81	95.50	97.03	97.20
엔화의 대원화 환율(100엔당)	1,197.09	1,195.95	1,182.21	1,172.57	1,179.33
닛케이평균주가(종가)	13,033.12	13,007.28	13,245.22	13,014.58	13,230.13
장기금리(10년물 국채금리, 연리%)	0.835	0.820	0.810	0.850	0.870

□ 주요 거시경제지표

- 5월중 수입은 6조 7,616억엔, 수출은 5조 7,676억엔으로 9,939억엔의 무역적자 기록

* 對한수입은 2,853억엔, 對한수출은 4,608억엔으로 1,755억엔의 對한무역흑자

구분	2011	2012	2013				
			1월	2월	3월	4월	5월
실질GDP증가율(연율,%)	0.3	1.2(2.0)	4.1			-	-
수 출(천억엔)	653	639(637)	48	53	63	58	58
수 입(천억엔)	697	721(707)	64	61	66	67	68
對한국 수출	52.1	49.7(49.1)	4.01	4.25	5.21	5.07	4.61
對한국 수입	32.9	32.8(32.4)	3.12	2.92	2.81	2.58	2.85
직접투자(억달러)	(1,157)	(1,223)	226			-	-
對한국 투자	(24)	(40)	7.5			-	-
소비자물가(%)	0.0	▲0.2(0.0)	▲0.3	0.1	0.3	0.3	-
실업율(%)	4.5	(4.4)	4.2	4.3	4.1	4.1	-
경상수지(천억엔)	76.2	42.9(47)	▲3.6	6.4	12.5	7.5	-
엔화 對미달러	79.1	82.9(80.1)	89.2	93.2	94.8	97.7	101.08
환율 對원화(100엔)	(1,391)	(1,413)	1,197	1,166	1,161	1,148	1,100
외환준비고(기말 천억달러)	12.9	12.5(12.7)	12.7	12.6	12.5	12.6	12.5
국채금리(10년, 연리%)	0.985	0.560	0.740	0.665	0.560	0.600	0.860

주1) ()는 역년(1~12월)기준

2) 소비자물가, 실업률, 환율은 기간평균, 자료: 닛케이신문, 재무성, 한국은행

□ 주요 보고서 워칭 사이트(report watching site)

- 『일본은 왜 수출이 증가하지 않는가 : 일본의 수출·투자비율이 낮은 배경』
국제무역투자연구소, 6월19일

*출처:<http://www.iti.or.jp/column011.htm>

- 『일본의 통상정책을 둘러싼 환경』 스미토모상사종합연구소, 6월21일

*출처:http://www.sumitomocorp.co.jp/files/user/doc/souken/be/BE_13summer_soukenreport.pdf

② 주간경제이슈 : 2013년도 일본경제전망

- 아베노믹스 효과로 '13년 1분기 경제성장율이 상향 수정됨에 따라 일본의 민간 연구기관들이 잇따라 새로운 경제전망치를 발표

□ 경제성장율의 상향조정

- 6월 10일, 내각부는 엔저에 의한 수출환경 개선, 高주가 영향에 의한 소비 증가 등을 고려하여 2013년 1분기 실질 GDP성장률을 연율 3.5%에서 4.1%로 상향 조정
- 1~3월 기간 중 실질 GDP성장에 대한 내수기여도는 60%, 수출기여도는 40%로 4분기 만에 플러스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

□ 아베노믹스 효과로 고성장 예상

- 2013년도 실질 GDP성장율에 관한 민간연구기관들의 전망치는 아베노믹스의 효과로 2.3%~3.5%(민간예측기관 평균 2.7%)의 고성장 예상
- 상반기(2013.4~9)에는 미국의 경기회복과 엔저를 배경으로 한 수출환경 개선, 기업 마인드의 개선 등에 의한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내수, 수출 모두 성장기조 정착
- 하반기(2013.10~2014.3)에는 소비세율 인상을 앞둔 내구소비재와 주택투자의 가수요까지 가세할 것으로 전망

□ 디플레이션 탈출은 어려울 듯

- GDP갭의 공급초과는 2013년도 말까지 일단 해소될 것이나, 2014년도에 소비세 인상으로 공급초과 현상이 재발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3년도에 0.1%~0.5%(민간예측기관 평균 0.3%)로, 2014년도에도 소비세인상 요인을 제외하면 크게 높아지지 않을 전망
- 따라서 GDP갭의 축소에 더하여 기대인플레이율의 대폭적인 상승이 수반되지 않는 한, 2014년도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치 2% 달성과 디플레이션 탈출은 어려울 전망

□ 100~105엔대의 엔저 유지

- 최근 94엔대까지 엔고 반전이 진행되고 있으나, 디플레이션탈출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한 일본의 금융완화 계속, 미국의 출구전략 실시, 일본의 무역적자정착, 미국의 쌍둥이 적자 개선전망, 유럽재정위기의 진정 등을 고려하면 엔저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 2013년도 기간평균 엔화환율은 100~105엔(민간예측기관 평균 : 102.3)

□ 아베노믹스의 기대효과와 장기금리

- 아베노믹스의 기대효과는 금융완화→금리하락·엔저·물가상승 예상→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수익개선→임금 및 주가 상승→소비증가의 선순환임
- 다이와종합연구소에 의하면, 10%의 엔저는 0.3~0.5%의 GDP증대효과와 0.2%의 소비자물가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 다만, 이 과정에서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 상승 등에 따른 금리상승압력이 발생, 이것이 양적·질적 금융완화에 의한 금리하락 효과보다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음

□ 장기금리 상승 전망과 악영향

- 그런데, 최근 일본 채권시장의 난조로 장기금리가 상승
- 다이와종합연구소 분석에 의하면 장기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 엔저·고주가에 의한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장기금리 상승으로 인한 설비투자 감소, 일본 내 생산거점 축소 등 공동화가 가속될 우려가 있다는 것
- 그러나 문제는 금융완화 해제 이후 장기금리의 상승압력이 커질 가능성과 이에 따른 악영향인데 2013도에는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
- 다이와연구소에 의하면, 2%의 물가상승목표를 달성한 이후 일본은행이 출구전략에 착수하는 경우, 장기금리가 2%를 상회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엄청난 정부부채로 인해 5% 수준까지 상승할 리스크도 있음

〈주요 민간연구기관의 일본경제전망〉

	실질GDP 성장률(%)		장기금리(%)		소비자물가 상승률(%)		엔화 환율 (엔/달러, 평균)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제일생명경제연구소	2.9	0.4	-	-	0.3	2.7	105	110
닛세이기초연구소	2.6	0.0	0.8	1.0	0.3	2.5	102	107
도레이경영연구소	2.6	0.2	-	-	0.3	2.4	101	106
미쓰비시UFJ리서치	2.3	-0.1	-	-	0.2	2.3	-	-
일본경제연구센터	2.6	0.4	0.81	1.00	0.5	2.6	102	105
농림중금종합연구소	2.8	1.3	0.81	0.88	0.4	2.9	104	110
다이와종합연구소	3.1	0.7	0.88	1.05	0.3	2.9	100	100
미즈호종합연구소	2.7	0.6	0.90	1.06	0.1	2.3	102	107
후지쯔종합연구소	2.5	0.6	-	-	-	-	-	-
일본종합연구소	2.6	0.1	-	-	0.4	3.1	102	107
미쓰비시종합연구소	2.7	0.4	-	-	-	-	-	-

- 장기금리상승은 일본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한편, 일본의 금융시스템에도 일정부분 악영향을 미침
- 재정수지 악화 및 정부부채 잔고 누증

□ 아베노믹스의 과제

○ 아베노믹스에 대한 우려와 리스크

- 재정규율 유지에 실패하는 경우 3低(채권가격, 주가, 환율)가 발생할 리스크
- 현 시점에서 아베노믹스는 금융정책과 공공투자 등의 일시적 처방이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이 불충분하다는 지적
- 인플레이션 진행과정에서 임금소득이 증가하지 않을 우려 등

○ 과제

-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적 개혁 등을 통한 재정규율 유지
- 규제완화, TPP참가, 법인세 인하 등 근본적인 성장전략 강화
- 노·사·정의 고통분담에 의한 임금소득 증가

③ 경제정책동향

□ 일본·EU, 주요 수출품의 안전심사절차에 상호승인하기로

- 일본과 EU는 전자기기와 자동차 등 주요 공산품의 안전기준을 상호승인하기로 함
 - 일본 국내에서 EU기준을 심사할 수 있게 되어 수출기업들의 심사항목이 대폭 줄어들게 됨
 - 일본과 EU간 무역액의 50%정도가 상호승인 대상품목으로, 장래에는 기준 자체를 통일하여 일본과 EU간 공산품 안전규격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 현재는 일본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수출대상지역인 EU에서 처음부터 다시 안전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음
 - EU에서 심사를 받는데 2~3개월이 소요되고 인증을 취득하는데 수출액의 2% 정도 비용이 소요
- 상호승인제도(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를 도입하면, 일본의 인증기관이 일본 국내의 심사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심사항목을 일본과 유럽에서 중복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게 됨
 - 일본기업들은 수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한편, 외국기업들도 일본시장에 진출하기 쉬워져 일본시장에서 유럽제품과 일본제품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
- 일본과 EU는 자동차, 전기제품, 의료기기, 의약품(약품 제외), 화학제품 등 5개 분야를 대상품목으로 합의
 - 유럽은 일본에 건축자재, 약전 주사제 등의 무균제제도 포함해 주도록 요구
- 안전기준에 관한 상호승인의 다음 단계는 일본과 EU의 안전기준 그 자체를 통일하는 것임
 - 기준을 통일하게 되면 일본공업규격(JIS)나 건축자재의 안전규격을 유럽의 규격과 일원화하는 방안도 협의하게 됨
 - 현재는 일본기업들이 유럽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안전규격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
- 상호승인이 합의됨에 따라, 일본·EU간 교섭의 초점은 일본이 EU에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관세와 일본의 경자동차 규격 등으로 이동
 - EU는 일본에게 비관세장벽이 많다고 주장하면서 안전기준의 통합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음
 - 일본은 안전심사기준의 국내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자동차에 대한 10%관세, 박형TV에 대한 14%관세 철폐 등을 EU에 요구

4 일본기업동향

□ 미쓰비시UFJ, 태국의 대형은행 매수

-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이 태국의 대형은행인 아유타야은행을 4,000억엔에 매수
 - 일본의 은행이 아시아국가의 대형은행을 직접 경영하기는 처음으로, 현지 일본계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
 - TOB(주식공개매입)을 실시하여 아유타야은행의 주식을 25% 보유하고 있는 미국 GE 등으로부터 51% 이상의 지분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GE를 포함하여 TV방송국사업 등을 하고 있는 은행오너와 협의 중이며 7월초 정식 합의 예정
- 아유타야은행의 시가총액은 약 6,000억엔으로 여기에 일정부분을 합한 금액의 과반을 출자하는 일반적인 케이스를 상정하면, 총 매수가액은 4,000억엔정도로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은행들에 의한 M&A로서는 최대 규모
 - 아유타야은행은 총자산 약 3조 4,000억엔으로 개인대출과 중소기업분야에 강함
 - 미쓰비시UFJ는 매수를 통해서 한꺼번에 거점망과 고객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됨
- 태국은 약 4,000개의 일본계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ASEAN의 수출기지로 중간층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다,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메콩 유역의 중심지역이기도 함
- 과거 일본은행들의 아시아 업무는 현지 일본계기업에 대한 용자나 무역결제에 중심이었는데 경제성장에 따라 현지기업 등과의 거래가 확대
 - UFJ의 경우,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60%가까이를 비일본계 기업과의 거래에 의존
- 금융 분야에서 일본의 아시아 전략으로는, 미쓰비시UFJ가 금년 5월 베트남 제2위의 산업무역상업은행에 약 600억엔을 출자한 외에,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이 인도네시아 연금저축은행에 1,500억엔을 출자하기로 함
 - 금융 분야는 자본규제가 엄격하여 이제까지 소규모 은행을 제외하고 출자비율은 50%이하에 그치고 있는 실정

□ 한국기업에 대항하기 위한 일본·독일 기업간 제휴

- 리튬이온 전지분야에서 일본 GS유아사가 독일 보쉬와 제휴
 - 독일 폭스바겐과 미국 크라이슬러 등 구미 대형 업체들의 환경기술 개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보쉬의 힘을 빌려 한국기업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닛케이 신문은 보도
 - 이것이 일본 국내 업체끼리의 연합체제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보쉬가 유일하게 뒤쳐진 분야가 바로 리튬이온전지 개발인데, 2008년 한국 삼성 SDI와 합작기업을 설립했으나 의견대립으로 작년 합작을 해소한 바 있음
 - 보쉬는 전지의 핵심부분인 셀을 생산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지메이커와의 협력이 필수
 - 제휴파트너를 GS유아사로 전환함으로써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차량의 개발 분야에서 선두주자인 일본자동차업체들과의 거래확대도 기대
 - 보쉬와 GS유아사는 기술정보를 공유하면서 차세대제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인데, 조건이 맞는 경우 생산통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 경합상대인 한국의 전지메이커는 세계시장에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 LG화학은 미국 GM, 포드자동차와, 현대자동차 등으로부터 수주를 받고 있음
 - 삼성SDI는 보쉬와의 합작을 통하여 크라이슬러, 독일 BMW 등과 수주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대기업에의 공급확대를 통한 비용절감이 주목적
 - 보쉬와 GS유아사에 의한 일본·독일 기업간 제휴로 수주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

5 한국관련워치

□ 한일 통화스왑 협정 중단

- 한일 양국은 7월 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30억 달러의 통화스왑을 중단기로 발표
- 한일은 금융협력의 일환으로 금융시장 혼란으로 인한 외화부족 시 상호 30억 달러를 융통할 수 있는 통화스와프를 운용하고 있었음
- 이와 관련하여, 스가 관방장관은 기한만료 이전에 필요하면 연장할 것이나, 한국이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일본이 나름대로 판단하겠다고 함
- 일본측의 연장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스가 장관은 일본이 적극 연장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말함

□ 한국 수출 재개 기다리고 있는 일본산 멧게

- 바다의 파인애플이라 불리는 일본 도호쿠지역산 멧게는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까지 對한 수출이 급증
- 일본 재무성 통계에 의하면 멧게의 對한수출은 2005년 280톤에서 2010년에 728톤으로 2.6배 증가, 수출은 거의 한국으로 이루어짐
- 한국에서는 부산을 중심으로 동호쿠지역산 멧게가 대인기
- 양식기간이 짧은 한국산에 비하여 일본산 멧게는 맛도 좋기 때문에 한국 바이어들이 근년 대거 일본산 멧게 수입에 나섬
- 그러나 대지진 발생 이후, 현지 멧게 양식시설이 전멸함에 따라 양식장을 재건중인데, 내년 여름에나 출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양식 재개 이후에도 對한 수출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감도 있어, 일본 국내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음
- 현지 어민들은 모두 한국인 업자와 거래하고 있다고 함
- 수출용 멧게는 가공에 손이 많이 가지 않아 그대로 한국에 수출되고 있는 데 비하여, 일본 내수용은 크기를 맞추어야 하는 작업이 필요